

순천시, 반려나무숲 조성사업 공모



순천시는 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반려나무숲 조성사업 대상자를 오는 20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는 시민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공감대와 붐을 조성하

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일환 오는 20일까지 심사 통해 5곳 선정 오는 3월부터 사업 추진

기 위한 것으로, 순천시에서 반려나무 숲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선정된 부지에 시민 및 단체가 직접 반려나무를 구입하여 식재·관리하는 반려나무 숲으로 조성된다.

반려나무 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읍면동장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순천시 공원녹지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천만그루 나무심기 시민운동본부와 현장심사를 통해 5곳을 선정하여 2021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천만그루 나무심기는 아이나무, 기념목 등 반려나무를 심고 가꾸어 미세먼지, 폭염 등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

여 살기 좋은 숲의 도시, 푸른 순천을 가꾸어 나가고, 특히 반려나무 식재를 시작으로 나무더 환경을 생각하는 생태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천만그루 나무심기는 시민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만큼 무엇보다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려나무 갖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기타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공원녹지과(061-749-6335)로 문의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고흥군, 농정분야 주요사업 접수 개시 농어민 공익수당 및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등

고흥군은 2021 농정분야 주요사업(농어민 공익수당,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을 접수 받는다.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시행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11월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올해 대상자 수는 19,257명(사업비 115억원)으로 사업 신청 접수수를 받아 대상자 검증 및 선정을 거쳐 연내 2회(상·하반기)에 걸쳐 6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오는 2월 26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2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상당의 바우처 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고흥군은 지난해 사업량 7,325명 보다 238명 늘어난 7,563명(사업비 15억원)에게 행복바우처를 지원 할 계획이며, 이는 전남도내에서 가장 많은 사업량이다.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은 우리군에 주소 1년 이상(2021.1.1.기준)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 75세 이하의 여성농어업인이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여수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15억 지원

주택 등 380동 대상...29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동에 신청

여수시가 올해 15억여 원을 들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총 380동이며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30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50동, 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30동으로, 철거

에서 수거까지 시가 선정된 업체를 통해 처리 비용으로 지급된다.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지붕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이뤄진 주택이 대상이며, 1가구당 120㎡ 기준 344만 원까지 철거비가 지원된다. 취약계층 30가구에는 지붕개량사

업비 610만 원을 지원하고, 소규모 축사과 창고 등 주택이 아닌 슬레이트 건축물은 50~200㎡ 기준 688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 주고자 120㎡ 미만 주택이거나 처리 후 잔액 발생 시 지방비에 한해 지붕개량비로 대체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이달 29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우선 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발암물질이 있는 슬레이트 철거로 주거 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보성군, 특산물 캐릭터 BS삼총사 지상파 타고 전국으로

농가와 상생 꿈꾸는 보성군 공무원 노력에 시청자 '감동'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보성군 특산물 캐

릭터 BS삼총사가 지난 7일 광주MBC '오매! 전라도'를 통해 전파를 탔다.

보성녹차, 벌교꼬막, 보성키위를 모티브로 탄생된 BS삼총사는 15분가량 진행된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특유의 귀여움을 무기로 지역 특산물의 장점과 매력 알리며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BS삼총사가 직접 준비해온 제철 보성키위를 맛 본 손민지 아나운서는 “평소 키위를 좋아하는 데 우리나라 키위 생산량 1위가 보성이라는 것은 이번 방송을 통해 알게 됐다.”면서 “과즙이 살아있고, 단 맛이 적절히 어우러져 정말 맛있다.”라고 말했다.

별교 참꼬막을 먹은 김귀빈 아나운서는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며 “이 맛에 한 번 빠지면 전 세계인도 헤어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시식평을 남겼다. 보성군 대표 특산물 캐릭터 BS삼총사는 스튜디오에서 준비한 댄스와 질문들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댄스 후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인터뷰에 응하는 모습으로 시청자에게 웃음을 안기기도 했다.

특히, 마지막 MC의 요청으로 인형 탈을 벗은 모습이 공개됐을 때 땀을 뻘뻘 흘리는 보성군 직원들의 모습이 전파를 타며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보성군은 외부 용역을 사용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캐릭터 탈을 쓰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광주 MBC 유튜브 채널에는 BS삼총사와 보성군을 응원하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기도 했다.

보성=김택순 기자

광양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오늘부터 접수

광양시는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창업자로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이며, 집행금지 업종은 300만 원, 영영제한 업종(운영시간 제한, 배달 포장만 허용)은 200만 원을 각각 지원하며 지급시기

는 설 전까지 마칠 예정이다. 집행금지 업종은 유통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이며, 영영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 등이 해당된다.

집합금지와 영영제한 외 일반업종은 2020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시기는 3월 이후 예정이다.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일 때 100만 원이 지급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